

‘누수 피해’ 부풀려 역대 보험금 챙긴 일당

수리업체 대표 회유에 손해사정 보조인·관리인도 ‘짬짜미’ 누수시점·구역 조작, 견적 과다산출 수법...보험사 4곳 피해

누수 피해 규모를 부풀려 역대 보험금을 나눠 챙긴 하자 수리업체 대표와 손해사정 보조인, 보험 가입자들이 경찰에 들미가 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자 수리업체 대표 A(57)씨와 손해사정사 보조인, 주택관리인(관리사무소 직원), 보험 상품가입자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외벽·옥상 누수 등 피해가 발생한 87구의 손해 사정 규모를 부풀려 보험사 4곳으로부터 배상책임 보험금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수리업체 대표인 A씨는 누수가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인 8명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한 뒤 보험금 과다 지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가입자가 주택 소유·사용·관리하는 중, 예기치 못한 일상 사고나 우발 상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배상해야 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A씨는 보험 가입에 앞서 일어난 누수 피해도 가입 후 발생한 것처럼 꾸며다. A씨는 누수 피해 발생

로 아래층 세대에 배상해줘야 할 입주인에 접근, 배상책임 보험부터 가입토록 권유했다.

이후 피해를 입은 아래층 주민의 동의까지 얻어 3-4개월이 지난 뒤 보수 공사를 벌이는 수법으로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이후 누수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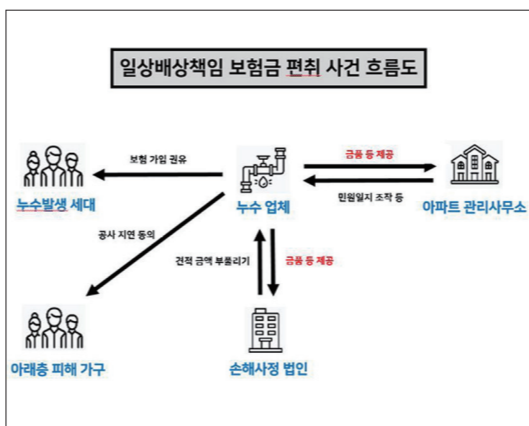
또 피해 견적 자체를 과다 산출하거나 복도 등 공용 공간 내 누수 피해도 보험 가입자 거주 세대에서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과다 청구·지급을 도왔다.

A씨는 손해사정 보조인 3명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끌어들여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사정 법인 소속 보조인들은 보험사 의뢰를 받아 진행되는 현장 피해 조사와 손해액 산정 서류 확보 등 고위 업무 권한을 악용했다. 관리사무소 직원 역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누수 민원 일지를 조작, 범행에 일조했다.

이처럼 보험사를 속일 수 있도록 도운 손해사정 보조인과 관리사무소 직원은 과다 지급 보험금 중 3700만 원을 나눠 챙겼다.

경찰은 보험금 청구·산정·지급 등 과정에 수리업



체 대표, 손해사정 보조인, 관리사무소 직원, 보험 가입자들이 한통속처럼 움직이며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짬짜미로 자칫 묻힐 뻔 했던 범행 전모는 올해 3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보수업체 대표 A씨의 회유로 보험 상품에 가입, 보험금을 과도하게 지급 받은 입주인 8명도 입건됐다. 감언이설에 현혹돼 한순간에 보험사기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점차 조직화·전문화되고 있는 보험 사기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업체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완도해경, “행복한 나눔, 함께하는 기쁨” 위문품 전달 나서

완도해양경찰서는 대국민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둔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완도군 가족센터에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영광경찰 청렴 동아리, 추석 명절 위문활동 실시

영광경찰서 청렴동아리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 영광읍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은빛고은요양원'과 법성면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나무랑 숲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나주경찰,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나주경찰서는 지난 26일 오전,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금성원, 이화영아원, 계산원 3개소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며 마음의 정을 나누었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경찰, 추석명절 특별방범활동 전개

화순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상동기 범죄 대비 특별치안활동과 병행하여 추석명절 특별방범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순천 신대파출소, 민·경 협력치안 합동순찰 활동

순천경찰서 신대파출소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및 '마약, 보이시피싱' 등 범죄예방을 위해 민·경 합동순찰활동을 실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안전체험 교실 운영

광주 남부소방서는 응급처치 집중홍보기간(9월~10월)을 맞아 지난 23일~24일 이틀동안 '남구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에서 소방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슬비기자

전남도 '추석 특별교통대책' 추진...27일부터 7일간 집중관리

교통상황실 운영...불편 신고사항 신속 처리

전남도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10월3일까지 7일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특별대책 기간에는 22개 시·군과 함께 상황실 운영을 통해 교통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불편 신고사항을 접수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은 긴 연휴로 교통 수요는 분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귀성길은 27~28일 집중돼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수도권을 연결하는 5개 노선의 시외버스 11대를 증차 운행해 귀성객의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앞서 긴 연휴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공사 현장과 노후·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마쳤다.

귀성객의 이동 편의의 제고를 위해 터미널, 휴게소,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완료하고

안전 운행과 친절 응대를 위해 운수종사원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명절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목표 청호시장 앞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은 미리 우회하도록 조치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귀성객이 고향 품에서 연휴를 편안하게 보내도록 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귀성객도 안전 운전 수칙을 잘 지켜 운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부산 도심 은행나무 열매 수거

부산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인근 도로가에서 가을철 도심 악취의 주범인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은행나무 열매 집중채취기간을 운영한다. 부산지역 가로수 16만8000그루 중 은행나무는 총 3만4000그루이며, 이 중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 약 1만그루다.

사망한 LG디스플레이 직원 하루 13시간 넘게 일했다

지난 5월 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LG디스플레이에서 편법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망한 해당 직원은 하루 평균 13시간 넘는 고강도 근무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19일 A씨는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장시간 근로 등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면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같은 달 31일 서울 여의도 LG디스플레이 본사를 불시에 찾아 감독을 실시했으며, 장시간 근로 여부와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서민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했고,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개(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는 1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어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는데, 이 한도를 위반하면서 직원 130명이 모두 251차례, 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특히 사망한 A씨의 경우 5월1일부터 사망일인 5월19일까지 25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린 것이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 시간 위반을 회피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분하고 편법, 탈법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뉴스스